

# GIST, 호남권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한 '모두의 창업' 토크콘서트 개최

- 중기부 노용석 차관 참석... 선배 창업가 노하우 공유 등 현장 밀착형 성장 지원책 논의
- 75억 펀드·상장사 다수 배출 노하우 갖춘 GIST, 30인 전문가 멘토단 투입해 호남권 창업 생태계 고도화 박차... 15일까지 대국민 기술창업 참가자 모집



▲ 5월 7일(목) GIST 산학협력관 1층 코워킹존에서 호남권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5월 7일(목) GIST 산학협력관 1층 코워킹존에서 호남권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모두의 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 GIST 임기철 총장, 김용철 연구부총장을 비롯해 선배 창업가, 예비 창업자, 재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환영사, 토크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노용석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창업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치는 과정이며 인생에서 강력한 자산이 된다"며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인 만큼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길 당부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차관이 직접 주도한 토크콘서트는 'GIST 청년 창업가들이 말하는 창업의 시작, 성장,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주제로 현장 소통형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이 토크 콘서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부에서는 **선배 창업가**(**㈜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이카루스 이종원 대표, ㈜어시스트 박주성 대표**)와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최재원·김동우 학생, 의생명공학과 송윤구 학생**)가 **패널로 나서 창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노 차관과 참석자들이 직접 소통하며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화 방법 ▲잠재 고객·시장 파악의 중요성 ▲딥테크 창업의 기술 검증 방안 ▲창업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연계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GIST 임기철 총장이 호남권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GIST는 그간 우수한 연구 성과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 예비·도약 창업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창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스트기술지주(주)(지스트홀딩스)는 설립 1년 4개월 만에 50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며 대학기술지주 중 최단 기간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모태펀드 정시 1·2차 출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총 7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등 독보적인 투자 역량을 입증했다.

임기철 총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창업 생태계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GIST는 창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기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모두의 창업’ 사업과 연계해 호남권 청년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GIST가 기술창업 분야 운영을 맡는 ‘모두의 창업’은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선정된 팀에는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후속 투자 연계 등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GIST는 (주)애니젠, (주)지놈앤컴퍼니, (주)바이오에프디엔씨, (주)에스오에스랩, (주)뉴로핏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배출한 노하우를 살려 현장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담 멘토단을 투입, 기술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